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 統一經濟

1996. 1 통권 제13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 統一經濟

1  
1996  
제13호

권두언  
1996년의 북한 • 유세희 ..... 2

특별기획  
북한의 최근 동향과 남북 관계 ..... 4

초 점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 그 배경과 의미 • 정영태 ..... 34

연구논단  
북한 경제 반세기의 평가 • 전홍택 ..... 38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정순원 ..... 70  
남북한 협상: 조건부 협력(TFT)의 조건과 가능성 • 장노순 ..... 100

통일다리  
민속 명절과 사회주의 명절의 나라 • 주강현 ..... 115

해외전문가기고  
남한, 북한, 러시아 3 국간의 경제 협력 전망 • 알렉산더 티모닌 ..... 119

북한경제  
북한의 전기 • 전자 공업 • 양범직 ..... 127

북한동향분석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 • 이태섭 ..... 145

서 평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 전상인 ..... 149

통 권 제13호  
등록번호 라-8926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6년 1월 8일  
편집 및 발행인 김홍용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홍호, 백학순  
전종택, 남승열  
김정균, 김 옥  
이장규, 정오영  
편집주간 김재철(이재철)  
발행처 원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용문구 계동 140-2  
대표전화 (02) 740-8001, 8009  
F A X (02) 740-8001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용문구  
대표전화 (02) 632-0858

본지는 반박성 기사를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 발행 및 실권 요건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과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광고는 본지의 기안, 게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1996년의 북한

유세희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장

**19**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이 보였던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핵분제로 정체에 빠지른 이후 침산을 거듭한 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내부 사정에 의한 대외적 통제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단편적인 정보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정황만으로 미루어 볼 때 정권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위기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개혁·개방이라는 순리보다는 핵이라는 강경책에 의존하려 했던 북한 자체의 특수한 속성이 자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실력 북한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개혁·개방 정책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미 위기를 순조롭게 관리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는가하는 느낌이 든다. 김일성과 달리 여러 면에서 허약한 김정일의 리더십이 과연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어느 체제나 체제 말기의 위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첫째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최근 급부상하는 북한의 군부는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는 권력 엘리트간의 분열이다. 권력 엘리트간의 분열은 처음에는 정책을 에워싼 대립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산별한 권력 투쟁으로 치닫기 마련이고, 그 승패는 어느 쪽이 물리적 강제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가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현재 정책 대립에서 권력 투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혼 통치'를 강조하는 김정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개혁·개방파는 분산되어 있어 그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본격적인 권력 투쟁의 전단계로 보는 이유는 개혁파는 비록 비조직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다고는 하나, 개혁·개방을 요구

하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식량난·에너지난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머지 않아 개혁 세력이 일부 군부의 지원을 받아 표면에 부상하면서 수구파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볼 때, 금년은 김정일 체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해가 될 것이다. 셋째는 정책의 비일관성과 무원칙성이다. 대체로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체계적이거나 계통적일 수가 없다. 만들어지는 정책이 전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특정 사안을 담당할 조직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일췌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예측을 매우 어렵게 한다.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강경성과 온건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주요 원인은 단순히 전술적인 차원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처한 위와 같은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흔히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가 취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 모형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본다면, 북한의 변화나 남북한 관계를 지나치게 우리 식의 잣대로 안이하게 보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공급 협정이 타결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나, 북한이 곤경에 빠졌으니 조금 도와주면 우리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생각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위기는 그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한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의 정치 일정을 놓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한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이와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